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 박 위원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 /연합뉴스

새정치 혁신방향 노선교체냐 세대교체냐

주말계 비대위 윤곽... 정동영 “선명하고 강한 야당”에 혁신모임 “인적 쇄신”

7·30 재보선 패배로 비상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방안 마련 및 혁신 이미지 구축을 놓고 연일 고심 중이다.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국민공감혁신위에 참여할 당 내의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물색하는 한편, 주요 당직을 채워나가며 조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정식 사무총장,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한 데 이어 금명간 혁신위 대변인과 위원장 비서실장 등을 인선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공감혁신위를 구성할 인사들은 1차로 이번 주말 전후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은 의사 타진하고 물색하는 단계”라며 “오는 20일까지 인선을 완료한다고 입장

인 만큼 서둘러서 인선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위원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 “일단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면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위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은 광주·전남이 새정치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혁신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위에 당내 인사가 5명 밖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박영선 위원장이 지역 출신 당 외부 인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참여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며 “호남지역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혁신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의 혁신방향과 관련해 노선 및 세대교체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이 격화될 경우, 혁신안을 제대로 마련하기 전에 계파 간의 내용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당내 혁신 모임 ‘더 좋은 미래’ 소속 김기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계파구조를 청산하고 당헌상에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느끼는 것은 사람의 변화”라며 인적 교체를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세대의 교체

가 아니라 생각의 교체”라면서 세대교체에 제동을 걸었다. 또 정동영 상임고문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선명하게 부딪혀야 정권교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진보로의 한 발 전진을 통한 야당의 선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천정배 전 의원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명한 비전과 치열한 야성을 지닌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세했다.

천 전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이름”이라면서 당명 변경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최근 회견에서 강조한 ‘생활정치’ 실현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사 ‘국정 교과서’ 전환 시사 “교육감 직선제 유지하며 보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환원 방침을 시사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과 역사관, 사회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다”면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황 후보자는 “국정교과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관이 돼도 그런 소신 아래 잘 매듭짓겠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에 대해 “교육, 고용, 복지를 융복합하는 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또 사



회통합과 갈등이 심한데 이것만 개선해도 국내 총생산(GDP) 3~4%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협조 아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김영란법’이라고 국민이 지칭하는 정신을 교육부가 솔선 수범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분리·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 대표까지 지낸 황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회·교육분야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사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어가며 공세를 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속에서 새출발 하겠다”

안철수, 측근들 만나 각오 다져

7·30 재보선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 대표가 최근 측근들과 만나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안 전 대표 측 최고위원들과 오전을 하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회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전 최고위원들이 안 전 대표에게 앞으로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하고, 안 전 대표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식이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안 전 대표에게 “지역주의 극복에 나서야 한다”라거나 “사회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국민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전 대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겠다”, “앞으로 종종 만나 뵈고 의견 나누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



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말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까지는 당분간 공식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민생 투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대표와 김현길 전 공동대표는 지난달 31일 사퇴 당일 저녁 박영선 현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만나 향후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전 대표들은 옛 민주당과 안 전 대표 측 새정치연합의 통합 정신을 잘 살려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세계개편안 실효성 공방

여 “투자·내수활성화 유도” 야 “부자감세 2탄” 반발

여야는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계개편안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안이 기업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유도해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2탄’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나성민 정책위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세계개편안이 ‘부자 감세 2탄’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강석훈 정책위부위원장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야당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오해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투자 기업이 우수배당기업이어야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는 우수배당기업이 아니라 이견의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은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부자 세금 줄이기로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1탄을 뛰어넘는다”며 “이

견회 회장 등 주식 부자 재벌의 경우 매년 수십억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에 대해서도 “서민 주머니를 채우는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과 궤를 같이하지만 정부 안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면 기업에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한다”며 “(가계소득 증대)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제2รอง위원장은 배당소득증대 세제에 대해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세금 거두면서 자본 소득에는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홍철학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가계 소득을 늘리면 고용을 늘리던가 임금을 늘리고, 가계 지출 세제가 나와야 하는데 느닷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슈퍼부자들을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뽁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뽁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치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